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기회인식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강재학¹, 양동우^{*}

¹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A Study on Effect of the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Opportunity Recognition

Jae-Hac Kang¹, Dong-Woo Yang^{*}

¹Department of Venture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연관성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기회인식의 중요성을 매개변수로써 새롭게 검증함과 동시에, 창업의지와 함께 창업행동을 일으키는데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창업효능감을 종속변수에 추가함으로써, 대학 내 학생들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를 함께 고취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폭넓게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경기도·인천의 대학생 3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그리고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간에 창업기회인식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향후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대학 창업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창업기회인식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verify the importance of opportunity recognition as a mediating factor and add th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which is recognized as another key factor that triggers start-up activities with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as a dependent variable. For this reason, in this study, 373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Gyeonggi-do Province, Incheon, were surveyed and analyzed empirically. The results of the study was as follows. First, the entrepreneurship partially affects th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opportunity recognition between the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was verified.

Keywords : Entrepreneurship, Opportunity Recogniti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Intention.

1. 서론

최근 스웨덴, 미국 등 선진국들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대학 내 창업교육이 그 어느때보다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양준환(2015)에 의하면, 원광대학교에서 창업실무,

창업론 등 창업 교과목들이 교양선택과목으로 운영되고 있고, 숭실대학교에서는 기업가정신, 벤처경영 등을 벤처중소학과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창업교육이 국가 주요정책의 목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았다[1]. Vanevenhoven(2013)은 대학창업교육에 있어

본 연구는 강재학의 박사학위논문을 축약한 것입니다.

*Corresponding Author : Dong-Woo Yang(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Tel: +82-2-2059-2333 email: dwyang@hoseo.edu

Received November 17, 2015

Revised (1st December 7, 2015, 2nd December 9, 2015)

Accepted January 5, 2016

Published January 31, 2016

서 학생들만 교실 밖으로 나가 창업현장에 뛰어 들라고 하지말고 창업교육자 스스로 연구실을 벗어나서 학생들과 이러한 창업현장의 경험들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대학창업교육을 권고하였다[2].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대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사업은 기업가정신 교육 등 가장 기본적인 창업 마인드 확산을 위한 창업교육과 함께 사업 아이디어가 어느정도 확정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사업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는 근본적인 창업기회인식에 대한 교육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아울러,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와 함께 창업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선행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업효능감의 실증적 분석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를 함께 실증 분석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상관관계와 영향력을 창업기회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대학생의 창업기회인식 교육 확산을 통한 대학 내 창업효능감 고취 및 창업의지 확산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2.1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1970년대로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촉발된 기업가정신 혁명은 1985년 사업계획 작성대회를 시작한 뱀슨 칼리지(Babson College)와 텍사스 주립대(University of Texas)를 중심으로 대학에서 기업가정신 과목을 개설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미국 내 전체 4년제 대학의 60% 이상이 기업가정신 과목을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있다.[3]

Reader, D. and D. Watkins(2006)는 기업가정신의 연구주제를 분류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의 연구주제가 기업 내 기업가정신, 기업가의 경제적 역할, 가족기업의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정부정책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4], Muller, P.(2007)는 기업가정신이 지식의 유통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성장에도 큰 공헌을

한다고 주장하였다[5].

Hisrich, Peters & Shepherd(2013)는 ‘지속가능한 기업가정신(sustainable entrepreneurship)’을 제안하였는데, ‘지속가능한 기업가정신’이란 인지된 기회(perceived opportunity)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자연, 생명, 그리고 공동체를 보존하는데 중점을 둔 기업가정신으로 보았다[6].

Kuratko(2013)는 그의 저서에서 기업가정신 연구에 있어서 21세기 연구주제 경향으로 첫째, 벤처금융(venture financing), 둘째, 기업내 기업가정신(corporate entrepreneurship), 셋째,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넷째, 기업가적 인식(entrepreneurial cognition), 다섯째, 여성 창업자 및 소수집단 창업자(women and minority entrepreneur), 여섯째, 글로벌 기업가정신 확산(global entrepreneurial movement), 일곱째, 가족기업(family business), 여덟째, 기업가정신교육(entrepreneurial education)을 소개하였다[7].

국내에서는 이장우(1997)가 기업가정신을 현실적인 제약을 무릅쓰고라도 포착한 기회를 사업화하려는 행위 또는 과정으로 정의하였고[8], 이정호(2005)는 혁신성, 진취성, 그리고 위험감수성을 포함하고 있는 활동이라는 전제 하에서 기존 기업의 새로운 활동도 기업가정신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기업가정신의 영역을 기존 신규 기업 창출에서 기업내 기업가정신으로까지 확대 해석하였다[9]. 더 나아가 윤백중(2011)은 “기업가정신이란 급변하는 기업의 경쟁 환경하에서 현재 통제할 수 있는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등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으로,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체적인 태도와 역량”으로 정의하였다[10].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혁신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기업가적 마인드’로 정의하고, 그 구성요소로써 첫째, 혁신성, 둘째, 진취성, 셋째, 위험감수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국내의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초기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기업가정신 개념에 대한 소개 및 기업가정신과 혁신 혹은 기업가정신과 경영성과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이 주도해온 반면, 최근에는 정부주도의 창업활성화 정책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창업기회인식, 창업성공가능성, 창업교육 등 창업관련 다양한 변수들과의 연관성 연구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

대[11].

이미자·김중규(2013)는 창업대학원생·소상공인창업교육생·일반인 총 2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의지와 외부요인, 내부요인의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12], 한정희·김정호(2013)는 창업교과목(기업가정신)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들 1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목표지향성이 자신감과 성취욕구에 영향을 미쳤고, 성취동기가 창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13].

장성희(2011)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107개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분석한 결과,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기업의 경영성과 및 사회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4], 오영미·박성환(2014)은 대전충청지역의 대학에서 기업가정신 특강을 수강한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업의지의 기초동력이 되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이 창업의지에 정(+의) 효과를 주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15].

2.1.1 혁신성(innovativeness)

혁신은 과거의 오래된 무엇인가를 새롭게 바꾸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인데, 기업가정신에 있어 기술혁신을 강조한 Schumpeter(1934)는 진정한 혁신은 ‘창조적 파괴’를 동반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창조적 파괴’란 예를 들어, 휴대폰이라는 혁신적인 아이템이 생겨나면서 공중전화기라는 기존의 아이템이 사라져갔듯이, 한 혁신적인 아이템의 출현으로 대체된 다른 과거의 아이템이 파괴될 정도의 혁신을 뜻한다[16].

Thompson(1965)는 혁신성을 관료조직과 대비하여 전문성, 유연함, 분권화, 원활한 의사소통의 특징을 들어 설명하였고[17], 정지호(2014)는 혁신성을 보편적인 혁신성과 창업가특성의 혁신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보편적인 혁신성은 창업기업의 행동·과정·실천에 사용되는 광의적 의미라면, 창업가특성의 혁신성은 실질적인 실천과 행동을 중요시하는 적극적이며 좁은 개념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18].

2.1.2 진취성(proactiveness)

진취성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 일을 성취해나가는 성질을 말하는데, Hisrich & Peters(1986)와 Lumpkin

& Dess(1996)는 이러한 진취성을 새로운 벤처를 창업하는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능력으로 보았다[19][20].

국내연구에서 이춘우(1999)는 진취성을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수요에 부응코자 하는 경영활동, 즉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 기회를 포착하려는 경영활동으로 정의하였고[21], 노병수(2011)는 진취성을 기업가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경쟁자들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장변화에 앞서 행동하는 속성으로 정의하였다[22].

2.1.3 위험감수성(risk-taking)

위험감수성은 기업가정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사업실패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실행해나가는 성향을 뜻한다. 하지만, 이 때 기업가정신에 있어서 위험감수성이란 무턱대고 덤벼드는 무모한 도전을 뜻한다기보다는, 기업가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 철저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을 철저한 준비로 극복해나가는 합리적인 위험감수를 뜻한다.

Sexton & Smilor(1986)와 Slevin & Covin(1990) 또한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로서 위험감수성을 제시하였고[23][24], 이춘우(1999)는 위험감수성을 “불확실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도전하는 경영의사결정관행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영활동”으로 정의하였다[21].

2.2 창업기회인식 (opportunity recognition)

처음으로 창업기회에 대해 정의한 학자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인 Schumpeter(1934)로서 그는 창업기회를 자원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시장이 원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가능성이라고 정의하였다[16].

Casson(1982)과 Shane & Venkataraman(2000)은 Schumpeter의 정의보다는 창업기회의 수익성을 보다 강조하였으며[25][26], Singh(2000)은 이러한 견해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잠재적인 수익성의 추구에까지 창업기회의 의미 영역을 확장하였다[27].

창업기회인식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들은 창업기회인식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및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지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연구 대상은 대부분 1인창업기업 혹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해왔을 뿐[11], 창업기회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점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국내 대학에서는 현재 창업지원정책의 초점이 이미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이를 통과한 학생들에 대한 시제품 지원사업 및 멘토링 지원 및 창업자금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스웨덴 등의 선진국에서는 창업아이템 이전 단계 즉, 아이디어 발견 혹은 창업기회를 인식하는 단계부터 창업아이템화해나가는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있다.

따라서, 창업효능감이나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요인으로써 창업기회인식이 실증적으로 입증된다면, 국내 대학 교육에 있어서도 창업기회인식 즉, 아이디어 수립 단계부터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3 창업효능감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창업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이란 자기효능감(self-efficacy)으로부터 확장된 개념으로써, 최근 창업 관련 연구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주요 개념인데, 창업자로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할과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창업 능력에 대한 확신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Krueger & Brazeal(1994)은 ‘기업가적 잠재력 모델(model of entrepreneurial potential)’을 제시하면서, 창업자의 인지된 특성인 창업효능감이 신뢰도(credibility)와 잠재력(potential)에 영향을 미치면서 최종적으로 창업의도(intention)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28].

Boyd & Vozikis(1994)는 기업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개인적 특성들을 탐색하기보다, 창업효능감에 대한 조사가 기업가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해하는데에 더욱 역동적인 접근법을 제시한다고 주장하였다[29].

김해룡(2008)은 창업효능감을 창업의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창업의도로부터 창업행동으로 연결되는 가능성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행변수들 가운데 하나로 보았고[30], Hisrich & Shepherd(2013)는 ‘창업효능감이란 스스로가 기업가적 과정(entrepreneurial process)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뜻한다’라고 하였다[31].

최근 이러한 창업효능감이 창업연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최명화·조성숙(2014)은 창업효능감이 기업가의 행동과 성과에 대한 예측력이 크고 창업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증적 검증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였다[32].

2.4 창업의지 (entrepreneurial intention)

오상훈·하규수(2013)는 “창업의지는 예비 창업가들이 창업실행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고[33], 윤남수(2013)는 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잠재적 창업가들이 창업을 결정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그러한 개인의 창업 의사 결정과 행동이 있기 위해서는 창업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34].

이러한 창업행동과 창업의지와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는 크게 Shapero(1975)가 제시한 ‘창업 이벤트 모델(entrepreneurial event model)’과 Ajzen(1991)이 제안한 ‘계획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들 수 있다.

2.4.1 창업 이벤트 모델

(entrepreneurial event model)

Shapero(1975)가 주장한 ‘창업 이벤트 모델’은 ‘지각된 소망성(perceived desirability)’, ‘지각된 타당성(perceived feasibility)’, ‘행동 경향성(propensity)’이 창업의욕 또는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여기서 ‘지각된 소망성(perceived desirability)’은 창업에 대한 개인 욕구에 대한 인식을 뜻하며, ‘지각된 타당성(perceived feasibility)’이란 창업을 실행했을 때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뜻하고, ‘행동 경향성(propensity)’이란 개인의 행동 패턴 또는 행동 성향을 뜻한다. 이모델에 의하면, 개인이 해고, 졸업 직후, 군제대, 동업제의 등 긍정적 부정적 생애 이벤트(life event)가 발생했을 때, 그 대응 방안으로써 창업에 대해 지각하게 되고, 이러한 지각이 결국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게 되어 창업행동 유발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보았다[35].

본 연구에서 ‘창업기회인식(opportunity recognition)’의 조작적 정의는 ‘기업가 스스로 새로운 창업기회를 인식할 수 있고,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창업기회인식’은 ‘창업 이벤트 모델’에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서 제시되고 있는 ‘지각된 타당성(perceived feasibility)’과도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예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학내에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강의되고 있는 Ideation & Opportunity

Recogniton 교육이 '창업기회인식(opportunity recognition)'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창업기회인식(opportunity recognition)'에 대한 최근 1~2년 이내 해외연구들을 살펴보면, Wasdani & Manthew(2014)는 '창업기회인식(opportunity recognition)'의 잠재력을 성공하는 창업가와 성공하지 못하는 창업가를 구분하는 skill로 소개하였고[36], Niammuad, Napompech, & SuWanmaneepong(2014) 또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혁신에 대한 창업기회인식의 매개역할(mediating effect of opportunity recognition on incubated-entrepreneurial innovation)'에 대해 연구 발표하는 등 '창업기회인식(opportunity recognition)의 매개적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7].

이러한 최신 연구 트렌드에 따라, 저자는 '창업기회인식(opportunity recognition)'을 '창업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과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에 미치는 매개변수로 설정함으로써 본 연구의 차별성 및 학술적 의미를 담아 실증적 연구를 시도해보았다.

2.4.2 계획 행동 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Ajzen(1991)의 '계획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는 Ajzen & Fishbein(1980)가 주장하였던 '합리적 행동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을 확장 보완시킨 이론이다.

'합리적 행동 이론(TRA)'은 개인의 행동이 '행동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 창업의지)'에 의해 결정되는데 있어서, '개인의 태도(entrepreneurial attitude, 창업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을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주장하였는데[38], '계획 행동 이론'은 여기에 행동 실행 가능성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entrepreneurial self-efficacy, 자기 효능감)'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행동의지에 관한 사회심리학 연구 분야에서 폭 넓게 받아들여지는 모형이 되었다[39].

3.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이 창업기회

인식을 매개로 하여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한 연구모형은 다음의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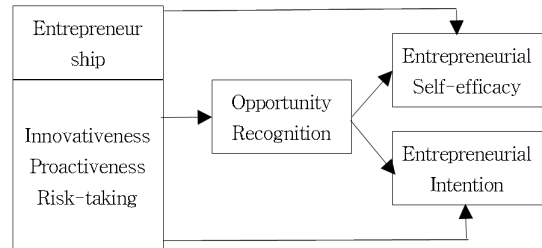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기준에 실패본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반면, 창업기회인식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기업가정신, 창업기회인식,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은 창업기회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 대학생의 혁신성은 창업기회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 대학생의 위험감수성은 창업기회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 대학생의 진취성은 창업기회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대학생의 창업기회인식은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 대학생의 창업기회인식은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 대학생의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은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 대학생의 혁신성은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 대학생의 위험감수성은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 대학생의 진취성은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 대학생의 혁신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 대학생의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3 : 대학생의 진취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때 창업기회인식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때 창업기회인식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3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하여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를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정리하였고, 본 연구의 설문지는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창업기회인식,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지 문항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composition of the questionnaire

Variables		Number of Item	measurement method
Entrepreneurs hip	Innovativeness	4	Likert 5-Point Scale Measurement
	Proactiveness	4	
	Risk-taking	4	
Opportunity Recognition		4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5	
Entrepreneurial Intention		5	

3.4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표본은 서울, 경기도, 인천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지 배포와 회수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5일까지 진행되었고, 결측값이 없는 총 373부의 설문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Ver. 21.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카이저 규칙(Kaiser rule)이 있는 직각회전방식인 배리맥스(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를 하였고, 신뢰도 분석 (reliability analysis)에서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창업기회인식,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의 영향관계와 창업기회인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5 연구대상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도 및 인천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서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181명(48.5%), 여학생 192명(51.5%)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20세 미만 52명(14.0%), 20~25세 미만 265명(71.0%), 25세 이상 56명(15.0%)로서 대학생의 특성상 20~25세 미만이 가장 많았다. 학년은 1학년 73명(19.5%), 2학년 95명(25.5%), 3학년 104명(27.9%), 4학년 101명(27.1%)이었으며, 거주지역은 서울이 129명(34.5%), 경기도가 139명(37.3%), 인천이 105명(28.2%)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용돈은 10만원 미만 53명(14.2%), 10~30만원 미만 123명(33.0%), 30~50만원 미만 144명(38.6%), 50만원 이상 53명(14.2%)로 70% 이상이 10~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원 미만 110명(29.5%), 300~500만원 미만 140명(37.5%), 500~700만원 미만 71명(19.0%), 700만원 이상 52명(14.0%)이었으며, 창업교육경험은 없다 272명(72.9%), 있다 101명(27.1%)으로서 창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Sample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181	48.5
	Female	192	51.5
Age	Under 20	52	14.0
	20 ~ 25	265	71.0
	Over 25	56	15.0
Grade	1	73	19.5
	2	95	25.5
	3	104	27.9
	4	101	27.1
Area	Seoul	129	34.5
	Gyeonggi-do	139	37.3
	Inchon	105	28.2
Monthly Pocket Money	Under 100 thousand won	53	14.2
	100 ~ 300 thousand won	123	33.0
	300 ~ 500 thousand won	144	38.6
	Over 500 thousand won	53	14.2
Monthly Family Income	Under 3 million won	110	29.5
	3 ~ 5 million won	140	37.5
	5 ~ 7 million won	71	19.0
	Over 7 million won	52	14.0
Entrepreneurship Education Experience	No	272	72.9
	Yes	101	11.9
Total		373	100.0

4. 연구 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는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을 통해 기업가정신, 창업기회인식,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요인분석은 카이저 규칙(Kaiser rule)이 있는 직각회전방식인 배리맥스(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 요인부하량 0.5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측정변수의 신뢰성은 Cronbach's α 계수로 검증하였고, 신뢰계수는 0.6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4.1.1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Table 3 과 같이 3개의 요인이 도출되는데, 요인 1은 혁신성,

요인 2는 위험감수성, 요인 3은 진취성으로 명명하였다.

이들 요인의 총 분산은 66.493%였었고, KMO 값이 0.849, $p < .001$ 이었으며, 분석과정에서 요인값 0.5 이하를 보인 진취성에 관한 1문항을 제거하였다. 또한 Cronbach's α 계수가 혁신성 0.832, 위험감수성 0.802, 진취성 0.747로서 수용할만한 신뢰수준이었다.

Table 3. Factor Analysis Results of Variables

Variables	Items	Loading	Eigen Value	Cum. Variance	Cronbach's α
Innovativeness	IV 1	.845	2.702	24.565	.832
	IV 2	.834			
	IV 3	.834			
	IV 4	.597			
Risk Taking	RT 1	.820	2.531	47.576	.802
	RT 2	.795			
	RT 3	.686			
	RT 4	.673			
Proactiveness	PA 1	.830	2.081	66.493	.747
	PA 2	.753			
	PA 3	.747			

4.1.2 창업기회인식

창업기회인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Table 4 과 같이 단일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들 요인의 총 분산은 71.807%였었고, KMO 값이 0.808, $p < .001$ 이었으며, 모든 문항이 요인값 0.5 이상을 보여 제거된 항목은 없었다. Cronbach's α 계수는 0.730으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Table 4. Factor Analysis Results of Variables

Variables	Items	Loading	Eigen Value	Cum. Variance	Cronbach's α
Opportunity Recognition	OR 1	.891	2.872	71.807	.730
	OR 2	.848			
	OR 3	.827			
	OR 4	.822			

4.1.3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Table 5 와 같이 2개의 요인이 도출되는데, 요인 1은 창업의지, 요인 2는 창업효능감으로 명명하였다.

이들 요인의 총 분산은 71.326%였었고, KMO 값이 0.914, $p < .001$ 이었으며, 모든 문항이 요인값 0.5 이상을 보여 제거된 항목은 없었다. 또한 Cronbach's α 계수는 창업의지 0.910, 창업효능감 0.882로서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5. Factor Analysis Results of Variables

Variables	Items	Load-ing	Eigen Value	Cum. Variance	Cronb-ach's α
Entrepre-neurial Intention	EI 1	.865	3.724	37.239	.910
	EI 2	.855			
	EI 3	.852			
	EI 4	.807			
	EI 5	.657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S 1	.846	3.409	71.326	.882
	ES 2	.769			
	ES 3	.756			
	ES 4	.751			
	ES 5	.747			

4.1.4 동일방법편의 검증

본 연구는 동일 응답자를 대상으로 독립변수와 매개 변수, 종속변수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일 요인검증을 실시하였다. Podsakoff와 Organ(1986)에 따르면, 동일방법편의가 심각할 경우 단일 요인이 추출되거나 전체 분산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한 개의 '보편'요인이 추출된다고 한다.[40][41]. 하지만, 본 연구의 모든 측정항목에 대해 비회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보다 고유값이 큰 6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첫 번째 요인의 설명력이 전체 분산의 38.64%로 나타나 동일방법편의에 따른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4.2 기업가정신이 창업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제변인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기업가정신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창업기회인식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6와 같이 F=18.400,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35.9%였으며, VIF 값의 범위가 1.039~1.815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창업교육경험(t=3.358, p<.01)이 창업기회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기업가정신에서는 혁신성(t=10.199, p<.001)이 창업기회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결과는 대학생들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을수록 창업 기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험감수성과 진취성은 창업기회인식의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위험감수성과 진취성이 높을지라도 창업기회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아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6.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Opportunity Recognition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Opportunity Recognition				
		β	t	P	VIF	
Demographic Characteristic	Gender ¹⁾	.024	.532	.595	1.148	
	Age	.019	.337	.736	1.760	
	Grade	-.054	-.950	.343	1.815	
	Area 1 ¹⁾	-.010	-.183	.855	1.664	
	Area 2 ²⁾	.002	.029	.977	1.561	
	Monthly Pocket Money	.023	.486	.627	1.286	
	Monthly Family Income	.016	.345	.730	1.244	
	Entrepreneurship Education Experience ³⁾	.144	3.358**	.001	1.039	
	Entrepreneurship	Innovativeness	.514	10.199***	.000	1.432
		Risk Taking	.063	1.221	.223	1.502
Proactiveness		.016	.327	.744	1.352	
F		18.400***				
R ²		.359				
Adj. R ²		.340				

*p<.05, **p<.01, ***p<.001
¹⁾Gender(Female=0, Male=1), ²⁾Area(Inchon=0), Area 1(Seoul=1), Area 2(Gyeonggi-do=1), ³⁾Entrepreneurship Education Experience(No=0, Yes=1)

이상에서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혁신성이 창업기회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험감수성과 진취성이 창업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써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4.3 창업기회인식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대학생의 창업기회인식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성별과 거주지역, 창업교육경험을 더미변수로 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4.3.1 창업기회인식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창업기회인식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제변인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창업기회인식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창업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7와 같이 F=36.005, p<.001에서 유의

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47.2%였으며, VIF 값의 범위가 1.070~1.786으로 낮게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었으며, 창업기회인식($t=16.607, p<.001$)은 창업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결과는 대학생들이 창업기회를 인식하는데 남다른 감각이 있고 창업기회를 충분히 인식할수록 창업과정에서의 문제해결 및 성공할 자신감, 어떤 고난이라도 극복할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창업에서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창업의 기회를 인식하고 이용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경험과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Table 7. Effect of Opportunity Recognition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β	t	P	VIF
Demographic Characteristic	Gender ¹⁾	-.004	-.107	.915	1.115
	Age	.018	.354	.723	1.746
	Grade	-.019	-.354	.706	1.786
	Area 1 ¹⁾	.048	.984	.326	1.642
	Area 2 ²⁾	.053	1.106	.269	1.556
	Monthly Pocket Money	.027	.628	.530	1.276
	Monthly Family Income	.026	.614	.540	1.241
	Entrepreneurship Education Experience ³⁾	.070	1.783	.075	1.070
	Opportunity Recognition	.658	16.607***	.000	1.080
F		36.005***			
R ²		.472			
Adj. R ²		.459			

*p<.05, **p<.01, ***p<.001
¹⁾Gender(Female=0, Male=1), ²⁾Area(Inchon=0), Area 1(Seoul=1), Area 2(Gyeonggi-do=1), ³⁾Entrepreneurship Education Experience(No=0, Yes=1)

4.3.2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제변인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창업기회인식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창업의지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8과 같이 $F=31.902,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44.2%였으며, VIF 값의 범위가 1.070~1.786으로 낮게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성별($t=2.455, p<.05$)과 거

주지역($t=2.138, p<.05$), 거주지역2($t=2.144, p<.05$)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남학생이면서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일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지고 있었다. 창업기회인식($t=15.250, p<.001$)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 결과는 대학생들이 창업기회를 인식하는데 남다른 감각이 있고 창업기회를 충분히 인식할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창업의 기회를 인식하고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창업의지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Table 8. Effect of Opportunity Recogni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β	t	P	VIF
Demographic Characteristic	Gender ¹⁾	.102	2.455*	.015	1.115
	Age	-.021	-.408	.684	1.746
	Grade	-.030	-.567	.571	1.786
	Area 1 ¹⁾	.107	2.138*	.033	1.642
	Area 2 ²⁾	.105	2.144*	.033	1.556
	Monthly Pocket Money	.032	.724	.470	1.276
	Monthly Family Income	.020	.467	.641	1.241
	Entrepreneurship Education Experience ³⁾	.020	.494	.622	1.070
	Opportunity Recognition	.622	15.250***	.000	1.080
F		31.902***			
R ²		.442			
Adj. R ²		.428			

*p<.05, **p<.01, ***p<.001
¹⁾Gender(Female=0, Male=1), ²⁾Area(Inchon=0), Area 1(Seoul=1), Area 2(Gyeonggi-do=1), ³⁾Entrepreneurship Education Experience(No=0, Yes=1)

이상에서 대학생의 창업기회인식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첫째, 대학생의 창업기회인식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창업기회인식이 창업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둘째, 대학생의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4.4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제변인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기업가정신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창업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9과 같이 $F=13.930$,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29.8%였으며, VIF 값의 범위가 1.039~1.815로 낮게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창업교육경험($t=3.305$, $<.01$)이 창업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창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을수록 창업효능감이 높아지고 있었다. 기업가정신에서는 혁신성($t=7.272$, $p<.001$), 위험감수성($t=3.810$, $p<.001$)이 창업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 혁신성($\beta=.384$)의 상대적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9.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β	t	P	VIF
Demographic Characteristic	Gender ¹⁾	.006	.136	.892	1.148
	Age	.026	.452	.651	1.760
	Grade	-.041	-.687	.493	1.815
	Area 1 ¹⁾	.016	.284	.777	1.664
	Area 2 ²⁾	.042	.758	.449	1.561
	Monthly Pocket Money	.034	.675	.500	1.286
	Monthly Family Income	.032	.661	.509	1.244
	Entrepreneurship Education Experience ³⁾	.149	3.305**	.001	1.039
Entrepreneurship	Innovativeness	.384	7.272***	.000	1.432
	Risk Taking	.206	3.810***	.000	1.502
	Proactiveness	-.051	-.989	.323	1.352
F		13.930***			
R ²		.298			
Adj. R ²		.277			

p<.05, **p<.01, ***p<.001
¹⁾Gender(Female=0, Male=1), ²⁾Area(Inchon=0), Area 1(Seoul=1), Area 2(Gyeonggi-do=1), ³⁾Entrepreneurship Education Experience(No=0, Yes=1)

이 결과는 학생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등의 혁신성이 높을수록,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일을 수행하거나 위험을 극복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등의 위험감수성이 높을수록 창업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

다. 그러나 진취성은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진취성이 높다고 할지라도 창업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위험감수성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창업효능감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창업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진취성은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가설 3-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4.5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제변인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기업가정신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창업의지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10과 같이 $F=11.767$,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26.4%였으며, VIF 값의 범위가 1.039~1.815로 낮게 나타났다.

Table 10.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Entrepreneurial Intention			
		β	t	P	VIF
Demographic Characteristic	Gender ¹⁾	.103	2.122*	.035	1.148
	Age	-.006	-.102	.919	1.760
	Grade	-.054	-.889	.375	1.815
	Area 1 ¹⁾	.088	1.518	.130	1.664
	Area 2 ²⁾	.100	1.768	.078	1.561
	Monthly Pocket Money	.033	.654	.514	1.244
	Monthly Family Income	.025	.487	.627	1.244
	Entrepreneurship Education Experience ³⁾	.100	2.163*	.031	1.039
Entrepreneurship	Innovativeness	.361	6.681***	.000	1.432
	Risk Taking	.081	1.456	.146	1.502
	Proactiveness	.069	1.322	.187	1.352
F		11.767***			
R ²		.264			
Adj. R ²		.241			

*p<.05, **p<.01, ***p<.001
¹⁾Gender(Female=0, Male=1), ²⁾Area(Inchon=0), Area 1(Seoul=1), Area 2(Gyeonggi-do=1), ³⁾Entrepreneurship Education Experience(No=0, Yes=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성별($t=2.122$, $p<.05$)과 합

게 창업교육경험($t=2.163, p<.05$)이 창업의지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남학생이면서 창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을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기업가정신에서는 혁신성($t=6.681, p<.001$)이 창업의지
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결과는 대학생들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을수록 창업
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험감수성
과 진취성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위험
감수성과 진취성은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이 아닌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에서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혁신성이 창업의지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험감수성과 진취
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써 가설 4는 부
분적으로 채택되었다.

4.6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 간 창업기회인식의 매개효과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 간의
영향관계에서 창업기회인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11, Table 12과 같고, VIF 값의 범위가 1.000
~1.356으로서 낮게 나타났다.

창업기회인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1단계
에서는 독립변인인 기업가정신이 매개변인인 창업기회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기업가
정신이 종속변인인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고,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기업가정신
과 매개변인인 창업기회인식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4.6.1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간 창업기회인식의 매개효과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간의 영향관계에서 창업기
회인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Model II와 Model
III에서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β
=.476($p<.001$)에서 β =.173($p<.001$)로 변화하였고, 창업
기회인식은 창업효능감에 대하여 β =.591($p<.001$)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Model II보다 Model III
에서 감소하였으므로 창업기회인식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Sobel test 결과에 의하면 $Z=9.309, p<.001$
로서 창업기회인식이 유의미한 매개변수로 나타났다.

Table 11. Mediating Effect of Opportunity Recognition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ependent Variables	Step	β	t	F	R ²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Model I				
	Entrepreneurship → Opportunity Recognition	.513	11.497***	132.187***	.263
	Model II				
	Entrepreneurship →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476	10.423***	108.645***	.227
	Model III				
	Entrepreneurship →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pportunity Recognition →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173 .591	3.978*** 13.591***	 173.578***	 .484

* $p<.05$, ** $p<.01$, *** $p<.001$

4.6.2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간 창업기회인식의 매개효과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간의 영향관계에서 창업기회
인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Model II와 Model III
에서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β
=.454($p<.001$)에서 β =.165($p<.001$)로 변화하였고, 창업
기회인식은 창업의지에 대하여 β =.564($p<.001$)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업가정신이 창
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Model II보다 Model III에서
감소하였으므로 창업기회인식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
되었다. Sobel test 결과에 의하면 $Z=8.365, p<.001$ 로서
창업기회인식이 유의미한 매개변수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창업기회인식의 매개효
과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가설 5와 가설 6은 채택되
었다.

첫째,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때 창
업기회인식의 매개효과가 나타나 가설 5는 채택되었다.

둘째,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때 창업
기회인식의 매개효과가 나타나 가설 6은 채택되었다.

Table 12. Mediating Effect of Opportunity Recognition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Dependent Variables	Step	β	t	F	R ²
Entrepreneurial Intention	Model I				
	Entrepreneurship → Opportunity Recognition	.513	11.497***	132.187***	.263
	Model II				
	Entrepreneurship → Entrepreneurial Intention	.454	9.815***	96.341***	.206
	Model III				
	Entrepreneurship → Entrepreneurial Intention	.165	3.646***	145.601***	.440
	Opportunity Recognition → Entrepreneurial Intention	.564	12.446***		

*p<.05, **p<.01, ***p<.001

5. 결론

5.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지역의 대학생 373명의 자료를 실증분석하여 Tabel 13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은 창업기회인식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의 영역 중 Ideation & Opportunity Recognition 역량이 창업기회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창업기회인식은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창업기회를 인식할 수 있는 감각과 잠재력이 높을 경우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창업의지가 높아진다는 결과로서, 대학 생활에서 창업기회를 인식하기 위한 경험과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가정신교육이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Shinnar & Powell(2014)와 Maritz & Brown(2013)의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였다[42][43].

넷째,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가정신교육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Zhang & Cloudt(2014)와 Mueller(2011)의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였다[44][45].

다섯째,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간에 창업기회인식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여섯째,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간에 창업기회인식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이와 같이 창업기회인식을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와 연관시켜 매개효과로써 관련성을 밝힌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학술적으로도 의미를 지닌다.

Table 13. Result of Hypothesis Verification

Hypothesis		Result
H 1	Entrepreneurship → Opportunity Recognition	Partially Accepted
H 2	Opportunity Recognition →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Intention	Accepted
H 3	Entrepreneurship →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Partially Accepted
H 4	Entrepreneurship → Entrepreneurial Intention	Partially Accepted
H 5	Entrepreneurship → Opportunity Recognition (mediating effect) →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ccepted
H 6	Entrepreneurship → Opportunity Recognition (mediating effect) → Entrepreneurial Intention	Accepted

5.2 연구의 시사점

기존 대학 교육 현장에서 다년간 창업 관련 과목을 강의하며 유관 창업과목들의 커리큘럼을 지켜본 결과, 대학생들의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창업기회인식에 대한 교육 내용이 기업가정신 과목에서 아주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창업기회 인식의 매개효과가 검증된 만큼, 향후 대학생들의 창업 교육에 있어서 창업기회 인식 및 아이디어 발굴 등에 대한 교육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대학 창업 교육 현장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는 대부분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다는 데 집중되어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창업의지 및 창업행동을 예측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창업효능감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부족한 현실 속에서, 본 연구를 통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이 창업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적 검증이 이루어졌다는데에서 연구의 의미를 또한 찾을 수 있다.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역적 표본 대표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울·경기도·인천을 대상으로 하여 확대 일반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표본수가 373부에 한정되어 본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표본 대표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전국 범위로 연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그리고 기업가정신과 창업기회인식의 연관성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가 부족하므로 앞으로 더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창업기회인식에 대한 연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창업기회인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콘텐츠가 연구 개발될길 기대한다.

References

[1] Jun-Hwan Yang, "A Study of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4, pp.2564-2572,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4.2564>

[2] Vanevenhoven, J., "Advances and challenge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 51 No. 3, pp. 466-470, 2013.
DOI: <http://dx.doi.org/10.1111/jsbm.12043>

[3] William Bygrave & Andrew Zacharakis, "Entrepreneurship", translated by Lee, M. H. & Lee, H. S., Seoul: Dong-Seo Media, 2013.

[4] Reader, D. and D. Watkins, "The social and collaborative nature of entrepreneurship scholarship: A co-citation and perceptual analysi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30 No. 3, pp. 417-441, 2006.
DOI: <http://dx.doi.org/10.1111/j.1540-6520.2006.00127.x>

[5] Muller, P., "Exploiting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on growth,"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28 No. 4, pp. 355-362, 2007.
DOI: <http://dx.doi.org/10.1007/s11187-006-9035-9>

[6] Hisrich, R., Peters, M., & Shepherd, D., *Entrepreneurship*, ninth edition, NY: McGraw Hill, 2013.

[7] Kuratko, D. F., "Introduction to Entrepreneurship", Ninth Edition. Canada: South-Western Cengage L, 2013.

[8] Lee, J. W., "Venture Business", Seoul: Mae-il Economic Newspaper, 1997.

[9] Lee, J. H., "Relationships among Corporate Entrepreneurship, Organizational Structure, Organizational Cultur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s", Doctoral thesis,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2005.

[10] Yoon, B. J.,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spirit and motivation-driven entrepreneurship on establishment of new business by undergraduate student", Doctoral thesis, Graduate School of Venture of Hoseo University, 2011.

[11] Kang, J. H., "A Study of Effect of Self-Leadership by College Student on Recognition of Opportunity on Establishment of Company and Will of Establishing Company: Centered on Mediated Effect of Entrepreneurshi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10 No. 4, pp. 1-12, 2015.

[12] Lee, M. J., Kim, J. G.,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Succes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9, pp. 55-65, 2013.

[13] Han, J. H., Kim, J. H., "A Study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Decision Makings", *Review of business & economics*, Vol. 26 No. 6, pp. 2777-2797, 2013.

[14] Jang, S. H., "The Effects of Internal, External Environment and Entrepreneurship on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 Focused on the Network Activ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11, pp. 4801-4811, 2011.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1.12.11.4801>

[15] Oh, Y. M., Park, S. W.,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on Start-up Intention",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Vol. 14 No. 2, pp. 199-221, 2014.

[16] Schumpeter, Joseph A.,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ambridge : Harvard Univ. Press, 1934.

[17] Victor A. Thompson, "Bureaucracy and Innovation", *Special Issue on Professionals in organizations*, Vol. 10 No. 1, pp 1-20, 1965.

[18] Jung, J. H., "A Study on the effects of start-up education program on the entrepreneurship and the start-up and management performance", Doctoral thesis,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2014.

[19] Hisrich, R. D. & Peters, M. P., "Establishing a new business venture unit within a firm", *Journal of Business*

- Venturing, Vol. 1 No. 3, pp 307-322, 1986.
DOI: [http://dx.doi.org/10.1016/0883-9026\(86\)90007-8](http://dx.doi.org/10.1016/0883-9026(86)90007-8)
- [20] Lumpkin, G. T., & Dess, G. G.,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1 No. 1, pp 135-172, 1996.
DOI: <http://dx.doi.org/10.2307/258632>
- [21] Lee, C. W., "A Study on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Performance - Resource Based Theoretical Approach", Doctoral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9.
- [22] Noh, B. S., "A Study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ffect on the Self-Leadership and Entrepreneurship",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Hoseo University, 2011.
- [23] Sexton, Donald L., and Smilor, Raymond W., "The art and science of entrepreneurship",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s Academy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Historical Research Reference in Entrepreneurship, 1986.
- [24] Slevin, Dennis P. and Covin, Jeffrey G., "Juggling entrepreneurial style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MIT Sloan Management Review*, Vol. 31 No. 2., 1990.
- [25] Casson, M., "The Entrepreneur", Totowa, N.J. : Barnes & Noble Books. 1982.
- [26] Shane, S., & Venkataraman, S.,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6 No. 1, pp. 217-226, 2000.
- [27] Singh, Robert P., "A comment on developing the field of entrepreneurship through the study of opportunity recognition and exploit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6 No. 1, pp. 10-12, 2001.
DOI: <http://dx.doi.org/10.2307/259271>
- [28] Krueger, N. F., & Brazeal, D. V.,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8 No.3, 91-104, 1994.
- [29] Boyd, N. G., & Vozikis, G. S.,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18 No. 4, pp. 63-77, 1994.
- [30] Kim, H. R.,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Personality and Self-Leadership of Potential Founders in the Micro Business Area on Founder Self-efficacy - Applying the Big Five Factors Model and the Self-Leadership Theory",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 21 No. 6, pp. 2393-2420, 2008.
- [31] Hisrich, R., Peters, M., & Shepherd, D., *Entrepreneurship*, ninth edition, NY: McGraw Hill, 2013.
- [32] Choi, M. H., Cho, S. S., "Study on Factors for Efficacy and Purpose of Starting Business after Middle Aged Workers' Retiremen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7, pp. 226-241,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7.226>
- [33] Oh, S. H., Ha, K. S.,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by Start-up Environment and Self-efficacy Mediated by Fear of Business Failure",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8, pp. 143-157.
- [34] Yoon, N. S., "The Effect of Potential Entrepreneurial Motivations on Entrepreneurship and Commitment to Starts-up: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Review of business & economics*, Vol. 25 No. 2, pp. 1537-1557, 2012.
- [35] Shapero, A., "The displaced, uncomfortable entrepreneur", *Psychology today*, Vol. 9 No. 6, pp. 83-88, 1975.
- [36] Wasdani, K. P., & Mathew, M., "Potential for opportunity recognition: differentiating entrepreneur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Vol. 23 No. 3, pp. 336~362, 2014.
- [37] Niammuad, D., Napompech, K., & Suwanmaneepong, S., "The Mediating Effect Of Opportunity Recognition On Incubated-Entrepreneurial Innov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novation Management*, Vol. 18 No. 3, 1440005, 2014.
DOI: <http://dx.doi.org/10.1142/S1363919614400052>
- [38] Ajzen, I. & Fishbein, M.,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80.
- [39] Ajzen, I.,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Vol. 50 No. 2, pp. 179-211, 1991.
DOI: [http://dx.doi.org/10.1016/0749-5978\(91\)90020-T](http://dx.doi.org/10.1016/0749-5978(91)90020-T)
- [40] Podsakoff, P. M., Organ, D. W., "Selfreports in Organizational Research: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Management*, Vol. 12 No. 4, pp. 531-544, 1986.
DOI: <http://dx.doi.org/10.1177/014920638601200408>
- [41] Shim, D.S., Yang, D.M., Ha, S.W., "The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Characteristics, Locus of Control and Leader-Member Exchange, and Job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Management*, Vol. 18 No. 3, pp.175-216, 2010.
- [42] Shinnar, R. S., Hsu, D. K. & Powell, B. C.,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gender: Assessing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longitudinally",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Vol. 12 No. 3, pp. 561~570, 2014.
- [43] Maritz, A. & Brown, C., "Enhancing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through vocation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me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ol. 65 No. 4, pp. 543~559, 2013.
- [44] Zhang, Y., Duysters, G. & Clodt, M., "The rol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 a predictor of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Vol. 10 No. 3, pp. 623~641, 2014.
- [45] Mueller, S., "increas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effective entrepreneurship course characteris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Vol. 13 No. 1, pp. 55~74, 2011.

양 동 우(Dong-Woo Yang)

[정회원]



- 1986년 2월 :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
- 1989년 8월 : 한양대학교 (경영학 석사)
- 1996년 2월 :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 2015년 10월 ~ 현재 : 호서대 글로벌창업대학원 원장

<관심분야>

창업, 기술경영, 중소벤처경영

강 재 학(Jae-Hac Kang)

[정회원]



- 1997년 2월 : 홍익대학교 무역학과 (경영학학사)
- 2010년 2월 : 호서대학교 창업대학원 (경영학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경영학 박사과정)
- 2014년 9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정경창업대학원 겸임교수

<관심분야>

기업가정신, 창업, 중소벤처경영